전주시 청년정책, 청년이 만들고 펼친다

청년희망단 제안한 사업 시정에 반영 · 실제 사업화 추진

전주시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제안한 사업들이 전문가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시는 6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시의원과 대학교수, 청년단체, 일반청년, 시 국장급 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들은 만 19세~39세의 전주시 청년 60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청년희망단이 지난 1년간 토론과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거쳐 제안한 청년정책·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청년희망단이 제안한 10개의 청년정책에 대해 독창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정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분담해 추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나서는 등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심사에는 학자금 이자지원 확대, 1인 가구 밑반찬 공유 시스템, 청년참여예산제, 청년커플 맞춤형 결혼, 청년사회환원활동 지원사업 등 소통,교육,진로,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이 제안됐으며, 이중 '밑반찬 공유 시스템'과 '청년커플 맞춤형 결혼' 등의 정책은 정책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날 회의결과와 사전에 시행된 일반청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제안자 중 4팀을 우수자로 선발, 오는 21일 청년희망단 2차 정기회의 때 시상할 계획이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청년희망단 일자리정책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린 씨는 "청년이 직접 생각하고 기획한 사업안들의 독창성과 실행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주의 청년이자, 시민의 자격으로 시정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온라인 교육 수강권 기탁식 한국신지식농업인 중앙회는 6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유서옥 한국신지식농업인 전북도지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농업인,후계농등이 정보화 교육시스템 교육을 통해 쉽게 정보화 능력을 함양할수 있도록 써달라며 5,000만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 수강권을 기탁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문제학생들, 정상으로 변화

도교육청, 맞춤형 지원 강화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사업학교 131교와 연계학교 174교 등 총 305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으로 119억3,340만원을 수립하고 사업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학생의 성장이라는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지각과 결석이 잦았던 학생 영민이(가명).

영민이가 다니던 중학교 교육복지사는 영민이가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있으면 충분히 성장 가능한 학생이라고 판단, 복지실 도우미로 임명해 교육복지실 프로그램 신청과 복지실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고 이로인해 친구관계나 학교생활도 좋아지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갔다.

영민이는 중학교 내내 교육복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진로 프로그램과 선후배 멘토링, 교내·외 자원봉사에도 연간 40시간 이상씩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로도 정하고 리더쉽도 향상되어 갔다.

고등학교에서 스카웃 제안까지 받으며 진학한 영민이는 고교 2학년인 현재 정규 교과 학습이외의 시간은 청소년 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토요일 동아리 활동에서 코치 및 운영 지도를 하며 진로와 관련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관내 고교 입학을 원하지만 기초학습 부진으로 암담한 자신의 미래에 절망해 스마트폰 몰입으로 시간을 보내던 동준(가명)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많고 회피가 강해 상담도 거부한 동준이였지만 교육복지사의 친해지기 위한 부단한 노력 덕에 교육복지에서 진행하는 캠프에는 못이기는 척 참여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는 않는 학생이었다.

3학년이 되면서 혼자서 공부해 보겠다고 나름 노력해봤지만 성과가 없자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동준이를 지켜보던 교육복지사가 담임을 통해 두드림학교 참여를 권유하게 되었다.

혼자서 끙끙 앓았던 동준이는 울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고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공부하고 싶은데 산만하고 스마트폰을 자제할 수 없어 고통스러우니 도와달라고 했다.

1년 이상 자신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준 교육복지사에게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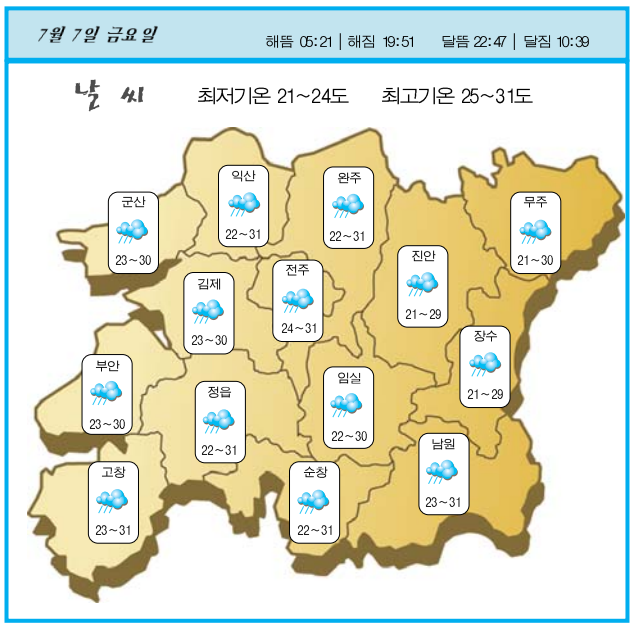
올해 여름방학 때 동준이네 학교에서는 동준이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명 '꿀잼 방학교실', '꿀잼 방학교실'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꿈을 향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여행으로 꾸며진다. 공부하는 방법 익히기, 독서치료를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자기성장 시간 갖기,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방문해 만화가 세상 알아보기 등의 내용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주간 운영한다.

요즘 동준이는 방학교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정이 부쩍 밝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은 "전북교육청은 학생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공동체라디오 '노송FM' 개국 운영

전주시민들이 방송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마을과 이웃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프로그램인 공동체라디오가 운영된다.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는 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내빈과 시민방송활동가,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의 소통역할을 책임질 공동체라디오 '노송FM' 개국식을 가졌다.

노송FM 개국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노송FM' 활성화를 위한 집담회와 개국식 오프닝 행사, 현장토크쇼, 공개방송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노송FM 현장토크쇼'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지 전주시의장 등이 즉석에서 토크쇼에 참석해 라디오 생방송의 묘미를 살리기도 했다.

노송FM은 올 하반기부터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치된 방송실에서 지역 관련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총 8회 정도의 방송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각종 행사에는 이동방송국으로 참여해 행사의 흥을 돋우며, 주민들의 공동체라디오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기평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노송FM은 앞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진행함에 지역공동체와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 실현을 하는 소통 컨트롤타워의 중심점에 있을 것"이라며 "소통으로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사람의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전주시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재용기자

대입 진학지도지원단 · 진학부장 전문연수

전북 대입 진학지도 지원단과 일반고 진학부장 전문연수가 오늘부터 8일까지 남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진학지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단 및 진학부장 등 110여명이 참여한다.

첫날인 7일에는 오후 4시30분 개회식 후 서점권 대교협 대표강사(광주 설월여고)의 '2018 전문대학교 전형 이해 및 지원 전략', 강인실 EBS 대표강사(인천 인명여고)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분석과 지원전략(수도권)'에 대한 강의가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밤 9시30분부터는 대입 진학지도지원단 팀별 및 진학부장 권역별 협의회가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다.

둘째날인 8일에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강세웅 자료개발팀장(임실고)이 '대학 특성화 사업 정보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정승모 대교협 대표강사(군산동고)가 '전북권 6개 대학 수시전형 분석과 지원전략'을 설명한다.

/정해은기자